

지역 디자인 발전 이끄는 허브: 지역디자인센터(RDC)

2006

디자인진흥원사

- 제12대 이일규 원장 취임
-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확대
- GD, 호주 굿디자인(AIDA)와 상호인증
- 『디자인코리아』 상하이 개최
-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개발
- 디자인 정책 연구파트 신설

한국 디자인사

-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디자인브랜드팀 조직 개편
- 한샘 카친바흐 론칭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설립
- LG전자 꽃무늬 아트디오스 출시
- 삼성전자 보르도 TV 출시
- 이상봉, 한글 패션쇼(프랑스 파리)

한국 사회사

- 백남준 사망
-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
- 반기문, UN사무총장 선출
- 경부선 서울부산 전구간 전철화 완전 개통

현재 운영되거나 건립되고 있는 각지의 디자인센터는 2001년 시행된 디자인혁신센터 운영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축하거나 선진 디자인 기술을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영세 디자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방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 DIC)를 건립하는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으로 확장 발전한 것이다.

먼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디자인 조사와 분석,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홍보에 필요한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구비한 산학 연계 방식의 디자인혁신센터가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과 기관들이 이들 디자인혁신센터의 한 축으로 참여했다. 디자인혁신센터는 디자인으로부터 도출한 신개념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높은 디자인 개발, 효율적인 디자인 인프라와 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업들이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전문 인력의 교육, 정보 축적 및 보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더불어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KIDP가 관여하여 관리 운영하는 지역디자인센터(Regional Design Center)의 건립이 진행되었고, 완공 이후에는 지역별 디자인센터로서 각 지자체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개원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광주디자인센터(현 광주디자인진흥원)는 광주첨단국가산단 내 연구 부지 3만 3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건축 면적 1만 7,354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졌다.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체험관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고, 디자인 기업의 입주 사무실과 교육실, 회의실, 정보 자료실, 장비 지원실 등을 갖추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 지방산단 내에 2004년 착공해 2007년 개원한 부산디자인센터(현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 동구에 2004년 11월 착공해 2008년 6월 개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3월에는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하였고 2013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머물던 지역디자인센터의 개원은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대전대덕테크노밸리에 2020년 개원한 대전디자인진흥원, 춘천일반산업단지내 강원디자인진흥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러한 지역 디자인센터를 통해 전국에 퍼져 있는 디자인센터 사이의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각 지역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각 디자인센터는 공통적으로 지역의 디자인 관련 업체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실과 다양한 교육과 연구, 전시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속 디자인 창업과 혁신을 위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중소기업 및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관련 기술 장비 활용과 운영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과 디자인 개발, 공동 장비 사용을 통한 경비 절감도 이루어졌다. 디자인 기반 기술의 개발과 교육, 종합 디자인 컨설팅 지원 또한 지역 밀착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과 업무 수행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